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재원 지원

우리 협회는 그동안 운영 및 지원해 오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독립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협정을 체결하고, 윤리위원회 운영재원으로 25억원을 지원했다.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 활용증대와 아울러 발생한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4월 정식기구로 발족하였으며, 그간 우리 협회의 지원아래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말로 분리, 독립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재원지원 협정서의 싸인이 지난해 12월 31일 있었다. 신범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왼쪽)과 손봉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 정보통신 불량이용자 공동관리를 위한 업계 실무자 회의

우리협회는 지난 1월 20일 관련 업계 실무자 12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통신 불량이용자 공동관리를 위

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최근 정보통신업체의 요금 상승 체납자 증가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와 통신상의 음란, 범죄, 폭력 등 반사회적인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증가되고, 고의 또는 상습체납자 및 불건전 정보 유통 등의 방지를 위한 업계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업체가 상호 불량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요금체납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불량이용자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 관련 공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1월 13일에는 정보통신업계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위한 업계 임계 간담회가 있었다.

한국PC통신 흥동수 상무를 비롯한 관련 업계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 신용정보공동관리 협의회의 구성과 불량이용자의 공동DB를 구축하고,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및 운영을 추진하고, 협회의 전산자원 보유현황 및 신용정보관련 보안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330명 합격

우리 협회가 지난해 12월 21일에 실시한 인터넷정보검색사 2차시험에는 1차시험을 통과한 3,616명이 응시, 64.3%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97년초에 시행된 제1회 시험에 이은 제2회 시험은 인터넷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접근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산·학·연의 협력체제를 통한 대용량 인터넷 온라인 시험 운영에 다시금 성공함으로써 인터넷기반조성에 기여했다.

제1회 시험에서 3,818명에 이어 제2회 시험에서 33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제2회 합격자중에는 87년생(11살)의 초등학생부터 42년생(56살)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돼 있어 시험에 대한 전국민적인 호응도를 짐작케했으며, 취업대상자(대학생·전문대생)의 지원이 50% 이상으로 취직대비 시험에 대한 관심도가 두드러졌다.

최종합격자는 협회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수첩을 교부받게 된다.

또한 우리 협회는 시험합격자를 위하여 합격자의 채용, 복무, 승진 등에 대해 업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인터넷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터넷 활용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관련 각종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합격자에 대한 재교육에 힘쓸 예정이며, 인터넷 관련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인 "인터넷누리"를 확대,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터넷 붐을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 제 2회 인터넷정보검색사시험결과

총응시자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평균
3,616명	2,330명	64.4%	68.8점

### 별정통신사업 관련 제도 설명회 상황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한국통신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114개업체 2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별정통신사업의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 관련제도 설명회를 가

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재홍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삼성SDS 김중환 전무가 "별정통신사업 전개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발표하였고, 정보통신부 오남석 사무관외 4명이 "별정통신사업 제도 및 운영방안"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의 시간도 가졌다 <사진>.



### 제12차 인터넷인증시험 운영위원회 회의

우리협회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협회회의실에서 우광호 한경PC라인 회장의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터넷인증시험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차 시험 시행결과와 채점결과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98년 인터넷인증시험 일정 협의와 인터넷정보검색사 및 1급 시험 계획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

## 한국LAN연구조합, 98년도 사업계획 확정

우리협회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한국LAN연구조합이 네트워크 기술, 장비 연구개발 독려 및 국내 네트워크업체들의 마케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98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한국LAN연구조합은 이번 사업계획(안)을 2월 열릴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LAN연구조합은 국내 네트워크 환경의 근거리통신망(LAN), 원거리통신망(WAN) 통합화 경향에 따라 조합명칭을 2월부터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으로 변경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LAN연구조합은 우선 조합원사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수요 조사와 정부출연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출연 연구과제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LAN연구조합은 경쟁력강화 기반기술 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LAN연구조합은 조합원사를 통해 무선 랜시스템 및 프레임릴레이와 일반전화망(PS TN) 연동 소프트웨어 등을 오는 4~5월 중에 내놓을 계획이며 고속이더넷, 기가비트이더넷 스위치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LAN연구조합은 국산 네트워크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네트워크제품 편람」을 발간하고 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산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열리는 개방형 시스템과 솔루션 전시회에 국산 제품 전시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국LAN연구조합은 이밖에 2백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3백50여개 전국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을 정리, 배포하고 국내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소개하는 등 국내업체 마케팅 지원사업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 2000년 표기수정 문제 추진 현황조사

우리협회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00년을 대비하여 지난 1월 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정보시스템 2000년 문제해결 추진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공공기관, 제조업, 정보통신업체,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예산확보 등을 포함한 산업별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2000년 표기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인식 정도 및 추진현황, 문제해결 방법과 예산 반영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00년 문제의 인식정도는 93.8%로 인식수준이 지난 조사결과 65.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나, 해결추진에 있어서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의 85.4%가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 대학교는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체는 예산부족을, 제조업은 최고 경영층의 인식부족을, 기타 서비스업은 예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예산 책정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공공기관, 대학교는 80%, 정보통신업체는 66.7%, 제조업은 87.3%, 기타서비스업은 100%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